

순천시 “추석연휴 이동자제 해주세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내달 11일까지 유지할 전망

재난지원금, 전 시민 지급 목표...다양한 방안 강구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추석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21일 오전 10시 담화문을 통해 “정부 표준방침에 따라 현행유지를 유지하면서 10월 12일 이후 전국이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완화된 조치가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0월 11일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민관공동

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거리두기 단계를 분야별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또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 시민께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접체된 지역 상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나 순천시의 힘만으로는 접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모든 시민이 힘



을 모아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조기에 차단했던 것처럼 착한인대로 운동, 지역사가 소비촉진운동에 적극 동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허 시장은 지난 광복절 연휴 때 서울에서 내려온 자녀로 인해 80대 남성이

감염되고 이로 인해 구례와 부산 해운대 일대가 불안해했던 상황을 예로 들어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많은 분들에게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가족과 친지들의 안전을 위해 올해 추석에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 아이사랑 모바일 앱’ 새단장

고흥군,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 지원 정보 한곳에

고흥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고흥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새롭게 단장,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고흥 아이사랑’ 모바일 앱은 기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것을 아이폰 운영체제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청년부부, 임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부 및 고흥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스마트폰 클릭 한번으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주요 콘텐츠는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타기관지원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콘텐츠별 사업내용에서는 담당자와 바로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며 홍보알림,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돼 있다.

‘고흥 아이사랑’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부 등복지·청년부부·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 설치를 독려하고, 개신사랑 등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에 신속하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 아이사랑’ 모바일 앱 서비스는 시대 변화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며, 결혼부터 교육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더불어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시, 어린 쏘가리 2만 6천여 마리 방류

하천·저수지 4곳 방류

광양시는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난 18일 수량이 풍부한 하천과 저수지 4곳(봉강면 백운제, 옥룡면 동천, 옥곡면 대죽제, 진상면 이정제)에 어린쏘가리 2만 6천여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행사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마스크 착용 등 감

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담당부서와 면사무소 직원 등 소규모의 인원만으로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상 내수면 방류 가능 품종은 15종으로, 광양시는 2004년부터 자체방류사업을 통해 7종(은어, 동자개, 매기, 잉어, 붕어, 동남참계)의 수산종자를 방류해왔다.

시는 다양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통

해 하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자체방류 이력이 없는 쏘가리를 방류 품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쏘가리의 경우 담수에 서식하는 농어과 어류의 대표 어종으로 동작이 매우 민첩하고 지느러미에 독가시가 있어 우리나라 하천의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외래어종인 베스

와 블루길 등의 퇴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내수면 어종 방류 시기가 끝나는 10월까지 전라남도의 지원을 통해 자라와 동자개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올해에는 쏘가리 방류를 시작으로 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과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온택트 보성세계차엑스포’ 성료

4일간 보성차 판매액 1억 2천만 원...농가 소득 한 몫

녹차수도 보성군이 국내 최초로 개최한 온택트 보성세계차엑스포가 지난 20일 4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보성세계차엑스포는 6만 4천여 명이 홈페이지를 찾아 온라인으로나마 보성 차향을 만끽하며 힐링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간 내 보성차 50% 특별할인 행사도 진행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성차가 판매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세계 최고의 명차를 선정하는 세계차품평대회와 대한민국 티블렌딩대회에는 세계차품평대회에 101건, 대한민국 티블렌딩대회에 34건이 출품되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차엑스포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제8회 보성세계차품평대회 수제덕 음차부문 금상에는 몽중산다원, 기계덕음부문 금상에는 보성원당제다원, 중제녹차부문 금상에는 청우다원, 청차부문 금상에는 복진성강삼미인차업 유한공사, 황차부문 금상에는 바이무당, 홍차부문 금상에는 천지은, 흑차부문 금상에는 라이홍고차방, 블렌딩차 금상에는 Gifal Tea, 말차부문 금상에는 소아다원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하지 못한 출향민과 차를 지내지 어려운 국민을 위해 보성향교 유도회 주관으로 명절 합동차례를 지내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 홈페이지 방송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송출되었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국가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근로자 복지 향상 등 변화 예고



여수시는 17일 여수국가산단 대개조 사업으로 내년에 국비 532억 원을 포함한 11개 사업에 총 1,000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4년간 이 11개 사업에 총 2,700억 원이 투입되어 일자리 창출,

안전한 산단, 친환경 관리, 근로자 복지 향상 등의 큰 변화가 예고된다.

여수국가산단 대개조 사업은 광양·울촌 산단 등을 포함 총68개 사업 2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중 여수국가산단에는 42개

사업에 2조 1900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 1차년도 주요 사업은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리센터 구축·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여수국가산단 재생 종합계획 수립 사업 등으로, 환경·안전과 근로환경개선 등을 우선 추진한다.

환경과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센터가 구축되고, 곳곳에 센서를 부착한 지능형 공용파이프랙과 로딩암이 안전을 뒷받침한다. 제조 공정 및 진단을 자동화할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게 되며, 스마트산단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으로 다른

산단을 선도할 자산을 축적하게 된다. 근로자 편익을 위해 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도 건립된다.

무엇보다 지금껏 종합 진단을 내리 보지 못한 여수국가산단 재생 종합개발 계획수립 사업은 산단대개조 사업의 빈틈을 메꿔 줄 것으로 본다.

한편 여수산단을 포함한 거점연계 대개조 사업으로는 지역선도 사업단지 연계협력 R&D사업 등의 6개 사업에 4년간 총사업비 270억 원 가운데 1차년도 42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금번 산단대개조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도움이 될 것”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웅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 삶이 행복한 광산
매력·활력·물결

